

12年만의 外出



鄭 英 姬

〈大韓어머니會 會員〉

산업시찰일정을 통보받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날부터 ‘떠난다’는 사실만으로 좁은 권태롭던 일상의 집안일도 좁은 수월해진 느낌이었다. 집안일을 남편에게 맡긴터라 ‘잘 다녀오라’는 배웅을 미안하고 고마와 하면서 용산역 광장으로 허둥지둥 달렸다. 12년만의 외출은 생각보다 답답했고, 그런 자신이 이상해져 ‘아주 늙은건가’ 아냐 뭐 ‘성숙’ 그런거겠지 나이가 몇인데 등등. 내 안에서는 상념의 작은 공방전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회원들은 어떤 해방감이랄까 즐거운 표정이었다.

서울을 빠져나와 양옆에 펼쳐진 진초록 별판의 농촌을 지나면서 ‘더 윤택해져야지’ 그리고

확히 지나는 자동차, 잘 가꾸어진 지방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뭏든 어디든 더도 덜도 말고 경부선변만 같았으면—이렇게 내 머리는 나쁘게 뿔인가를 헤아리고 있었다. 그런 사이 사이로 회원들의 가곡, 동요로 이어지는 여흥은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있는 동안도 계속 차는 달렸으니 먼 거리도 잠깐인듯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닿았다. ‘來訪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낯선 방문객에게는 한결 친근감을 주었다. 전시관 안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원자력발전 상황에 관한 영화를 보고 나왔을때 벽에는 원자력계에 공이 큰 「렌트겐」부터 시작하여 근세기 과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존경스러우면서도 한국인이 한분도 안계시다는 것에 심통이 나서일까 엉뚱하게(?) 인물들은 자료용 영화에 삽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 전시관의 자세한 원자로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중에 새삼 자연계의 무한한 신비와 그것을 규명하여 생활을 유익하게 하려는 지속적인 인간의 의지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지금 우리 앞의 거대한 사업이 우리 기술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반가웠다. 방문 전에는 원자력하면 우선 원자폭탄을 떠올려 ‘아 그 무서운 것’하고 두려움부터 앞섰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원자력의 이용은 동력, 의학, 농업, 공업, 열원 등 실로 다양한 것이어서 우리 생활의 의존도는 생각보다 대단한 것이었다. 원자력발전의 핵연료인 우라늄은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유와 같이 외국에 의존하는 현실이지만, 석유와 비교할때 원가, 대기오염, 발전량 등에서 월등한 경

**‘방사능 오염 제로’ 꼭 한국의 우수한 두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인 것만 같다. 나아가 더 많은 인류의 문제 해결을 꼭 우리의 우수
한 두뇌가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한국이 되리라.**

제성이 있음도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었다.

모형을 통한 상황 설명을 들은뒤 일행은 좀 떨어진 발전소 현장의 모습을 둘러보기 위해서 다시 차에 올랐다. 앞엔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그 상쾌함은 분명 서울의 것이 아니잖은가. 걸으면서 모두 품어갈듯 몇번이고 몇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드러난 발전소의 방대한 규모는 분명히 사람(남자?)이 이룬 땀의 결과이었다. 어느 기간산업 현장이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까만은 공정기간이 길고, 그 설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더욱 경이로운 것이었다.

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천문학적 숫자의 설비비가 들고, 공정기간(7~9년)이 너무 길다는 것. 또한 아무리 철저한 설계로 시공되고 다중 방호벽을 설치하고 첨단 폐기물처리과정을 거친다 해도 과연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전혀 없을 까. 일단 유사시에는- 답은 이 지구상에 어떤 기묘한 원리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 같다. 음양의 조화를 믿기 때문일까. ‘방사능 오염 제로’ 꼭 한국의 우수한 두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만 같다. 나아가 더 많은 인류의 문제 해결을 꼭 우리의 우수한 두뇌가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한국이 되리라. 비약일까?

세계문명의 이동주기로 보아 21세기는 극동에서 새 발상지가 될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나 한국이라는 원자로에 핵연료인 두뇌로의 2세를 키우고 있다. 어느날

우주를 향해 비상하여 세계를 주도(인류공영)해 나갈 두뇌가 대한 어머니들 품에서 자라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특히, 시설의 특수성때문에 외진 곳에서 오직 기간산업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수고하시는 현장의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평소에는 잊고 살았다. 스위치를 올리면 당연히 켜져야 하고 내리면... 내가 그냥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닐진데 송구스럽기 그지 없었다. 나는 남의 이웃으로, 남은 나의 이웃으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책임을 다 할때 서로의 삶이 더욱 풍요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새삼 새삼 머리를 치는 순간이었다. 가끔 계절병 처럼 잡다한 집안 일이 짜증스러웠는데 입을 꼭 다물어야겠다. 소비주체인 주부로서 알뜰한 살림으로 외채 청산에 한 몫을 담당하여 복지국가를 기원해야겠다.

집에 가서 전달 강습을 할 생각으로 팜플렛을 잘 챙기고는 현장의 모든 분들과 안내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면서 경주로 향했다.

되도록 이런 기회가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의 안일한 삶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에 도착하기 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정어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란 말씀을 전하고 이틀 동안 비운사이 일거리만 남아있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많이 유식해져 가지고.